전남 중부권

‘영산강살리기’ 막바지 문제점 속출

봄에 심어야 할 1년생 쪽 가을에 식재

무용지물 선착장 등 곳곳서 예산낭비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쪽 식재와 선착장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마무리 공사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돼 왔었던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발주처인 익산 국토관리청이 사업구간에 마무리 작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제3공구 사업지구인 다시면 회진리 나주천연염색문화관앞 둔치에 쪽을 식재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해당 작업의 경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염색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9000여만원을 들여 영산강변 5만4545㎡에 대량으로 쪽을 식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염료식물인 쪽은 1년생으로 서리와 추위 등에 민감해 보통 봄에 식재해 7~8월께에 수확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식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천연염색관 장홍기 관장은 “쪽을 지금 심으면 동해(凍害)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상식밖의 상황이 초래돼 놀라울 뿐이다” 며 막대한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또 죽산보에서 승촌보까지 뱃길 왕래가 가능하도록 통선문 등을 설치하는 등 5개의 선착장을 설치했으나 죽산보밑 주몽세트장 선착장의 경우 접안시설 높이가 수면 높이에 비교해 불과 1m 밖에 되지 않아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나주시가 복원해 운항할 예정인 고대 목선인 왕건호(100t·황포돛배)를 운항할 경우 접안이 불가능해 추가로 선박의 오르내리는 트랩 등의 유동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 밖에도 내륙의 유일한 등대로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는 나주시 이창동의 ‘영산포구 등대’도 이번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 장애인 통로 확보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했으나 전망이 가려져 현재 재시공되고 있는 등 말썽이다.

이에 대해 익산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염색테마공원과 선착장 조성사업은 나주시가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이다” 며 “쪽식재는 내년종자를 받기 위한 것이며, 선착장은 연약지반 등의 문제점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이장들의 줄다리기 강진군 11개 읍·면 이장들이 최근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해 줄다리기를 하며 결속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강진지역에는 291명의 이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에 글로벌 기업 온다

郡, LED 코세미·유기농 참든마을과 투자협약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양수 장성군수, 코세미㈜ 전선욱 대표이사, 참든마을 심재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5기 들어 장성군의 112개 기업유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커졌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양수 장성군수, 코세미(주) 전선욱 대표이사와 농업회사법인(주) 참든마을 심재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들어 9번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코세미㈜은 LED 조명, 형광등 제조부문의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특허권과 함께 일본 등 외국에서 인기있는 고효율의 조명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성군 동화 전자농공단지에 기반을 두고 일본 등 동남아에 제품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주) 참든마을은 남면 분향리에 유기농 야채수, 유기농 발아 현미차, 유기농 홍삼 등 발명특허 등록을 가진 유기농 제조 전문회사로써 유기농을 통한 건강식품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 역시 황룡면 신호리에 제2공장을 신축·확장하면서 국내시장은 물론 일본과 미국, EU 등 수출시장도 확대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90억원을 투자, 13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장성으로 오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펼치는 한편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나주교육청, 전입 직원 문화유적 답사 호평

나주교육지원청이 새로 전입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 답사활동을 실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26일 나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의 전통문화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심어주기 방안으로 새로 전입해온 40여명의 직원을 상대로‘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활동’을 실시했다.

나주읍성 4대문인 남고문을 시작으로 천연염색관, 쌍계사, 복암리 고분군 등 주요유적을 둘러본 이번 답사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나주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참여 공무원들의 평가다.

신기평 교육장은“전입 공무원들이 나주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교육행정 지원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전남 장애인한마음대축제

내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

‘제 20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제 11회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이 28일부터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진다.

(사)전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합동 결혼식에 이어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예술공연단 초청 공연 등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부부 22쌍이 화촉을 밝힌다. 이들은 합동결혼식후 4박5일간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정남진천문과학관 찾아가는 천문교실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은 학생들에게 천문우주 과학기술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0월 1일 장흥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우주가 내곁에’ 찾아가는 천문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장흥군이 주관하고 (사)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가 주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찾아가는 천문교실은 평소 교육과정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작하고 태양흑점을 직접 관측하는 등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문의(061-860-0651)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 북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년째 법정 공방

익산시 ‘업체 길들이기’ 중?

단속 100회 고발 20차례

익산시가 관내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업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J산업을 상대로 100회 이상의 점검과 단속을 비롯해 20여 차례의 고소·고발을 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업체는 시를 상대로 영업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J산업의 악연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J산업은 시에 폐기물 최종 처리업을 신청했으나 시가 여러 이유를 들어 반려하고 수차례의 보완명령을 하자 이를 이행한 후에야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또 시는 지난 1월 “J산업이 관리기준인 일일 복토와 중간 복토를 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J산업은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 등 악취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에 일일 복토와 중간 복토를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익산시는 이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민 고모(59·익산시 창인동)씨는 “익산시가 허가해준 업체의 지도·감독을 하면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체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며, “익산시 일부 공무원의 부정비리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앞바다 멸치어장 두고 충돌

군산어민협 “충남 어선 멸치 싹쓸이·어구 훼손” 호소

군산 앞바다에 형성된 멸치어장을 놓고 군산과 충남 서천지역 어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군산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을 서천 어선들이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충돌을 빚고 있다.

군산지역 소형 어선들로 구성된 자망복합발전 어민협의회는 “25일 8시께 서천을 중심으로 한 충남선적 어선 40~50여 척이 군산 비응도와 개야도 사이 멸치어장에 들어와 군산 어민들이 미리 설치한 그물 30~40여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어민협의회는 “충남 어선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으로 간 우리 어선 5~6척을 1시간여 동안 에워싸고 진로를 방해했고 뒤를 쫓으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이맘때만 되면 충남과 전북 어선의 갈등을 빚곤 했지만, 충남 어선들이 이번처럼 어구를 대규모로 훼손하기는 처음이라고 군산 어민들은 말했다.

어민협의회는 “충남 어선들이 10여일전부터 우리 어장에서 멸치를 싹쓸이해 어민의 피해가 컸다”면서 “충남 어선의 규모가 군산 어선보다 크고 신형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어 대항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군산해경은 사고발생 직후 양측 어선의 충돌 경위와 어구 피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술 어민협의회 회장은 “충남 지역의 배들이 우리 영역까지 내려와 남획하고 어장 파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와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축제 빛내는 마스코트 허수아비들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다양한 허수아비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와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주제로 ‘허수아비’ 모형을 생동감 있게 제작, 축제 행사장인 벽골제를 비롯해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주요 도로 등 19곳에 설치했다.

김제시는 2009년부터 축제 마스코트인 허수아비를 다양한 주제로 제작해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피겨여왕’ 김연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축구선수 박지성 등 간판급 스포츠스타의 허수아비를 실물 크기로 선보였고, 지난해는 월드컵축구 원정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축구 경기장면을 만들어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글로벌 새만금 지평선축제’ 등을 주제로 19개 허수아비 작품이 설치됐다.

요촌동 주민은 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신명난 장단에 어깨춤을 추는 농악놀이를 표현했고, 광활면민은 외국인들의 보리 수확 모습을 재연했다. 〈사진〉

교동월촌동민은 축제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입석줄다리기’를 표현했으며, 금구면민은 ‘마당놀이 콩쥐팥쥐전’을 만들었다.

이밖에 용지면의 ‘환경개선사업, 청정용지를 꿈꾸다’와 죽산면의‘수박서리, 이놈 게 섰거라~’ 등은 상상력을 발휘해 김제의 미래와 과거의 모습을 표현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 방사선과학硏 식품위생 검사료 공개 우수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방사선 조사 식품 위생 검사수수료 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검사수수료를 공개하는 곳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를 포함한 13개 기관이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정읍연구소 1곳 뿐이다.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보유하고 있는 첨단 분석장비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국내 기업 또는 식약청이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며, 기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검사 수수료를 온라인에 공개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수수료 공개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 구축에 기여하고, 다수의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여성 일자리교육센터 업무 개시

전북지역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여성 일자리교육센터가 지난 22일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총 165억 원을 들인 이 센터는 전주 덕진종합경기장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총넓이 8300㎡)로 교육실 16개와 회의실 2개 강당 등을 갖췄다.

여성 일자리교육센터는 기업이 요구하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반도체, 검사조립원, 식품품질관리원, 탄소소재 기계장비설치정비원, 자동차부품조립원, 급식조리원 등 7개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공무원 시민불편 살피미’ 시행

정읍시가 지난 15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공무원 시민불편 살피미’를 본격적으로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불편 살피미’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보고, 듣고, 느낀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조기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새올 행정시스템‘의 ‘종합관찰제’ 배너에 입력 등록하면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소방서 119구급대 출동로 확보 캠페인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제13회 김제 지평선 축제’를 앞두고 지난 26일 소방차량 및 119구급대에 대한 양보운전과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통 농경문화의 진수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 일대에서 펼쳐진다.

김화성 소방서장은 “해마다 축제기간에 심하게 정체되는 주변도로 때문에 긴급시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군·의회 스포츠마케팅 발벗고 나서

순창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2012년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발벗고 나섰다.

순창군의회 공수현의장과 김종태 스포츠산업담당, 통합체육회 공교환 사무국장 등 4명은 26~27일 이틀간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정구협회, 대한펜싱협회, 한국어머니배구연맹, 전국육상연합회 등 중앙협회 관계자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국제대회를 비롯해 전국대회, 도대회 등을 포함한 17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